

존경하는 김광신 원로목사님과 한기홍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안부를 올립니다. 코로나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도 힘껏 후원해 주심이 버팀목이 되어서 교회지역과 신학교지역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멕시코 현지인들의 가슴에 잘 심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신학기(멕시코 신학기)부터 산타페교회(Santa Fe)에서 신학수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는 기도하여 주심에 힘입어서 차근 차근 잘 성취되어가고 있습니다.

신학교육을 통해서 (1)현지인 목회자들을 잘 양성하여 멕시코 복음화에 크게 기여 함은 물론 (2)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현지인 노회원들과 함께 작성하여 “현지인 종교청에 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선교지 멕시코에서의 신학교육의 목적

1.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개척을 위해
2. 교회 단합을 이루며 각종 이단 퇴치와 정령송배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3. 멕시코 현지인과의 동역을 위해서와 중남미 복음화에도 기여키 위해
4.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리더십 이양을 위한 자질양성을 위해
5. 네비우스 선교정책(현지인 교회의 자치, 자립, 자력전파)의 토착화를 위해

신학내용 및 방법

1. 각 지역과 부족의 문화에 적용되는 성경적 신학
2. 전인격교육 곧, 영성훈련, 신앙인격훈련, 지식훈련과 목회체험훈련
3. 신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선교지향적인 신학
4. 실천신학 위주로 신학교육후 목회지역에 임하도록
5. 지교회와 개신교 단체에 적합한 지도자 양성

북(멕시코)중남미에서의 신학교육

1. 신대륙 발견과 함께 서구인들이 중남미에 오면서 종교를 식민지 정책의 한 도구로 사용하므로써 잘못된 신앙관과 신학을 답습해 왔다.
2. 현재의 북중남미는 신학이 바로 정립되지않아 교회의 모습이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서 보수신학으로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소명감있는 선교지 인재들에게 신학교육을 잘 시켜서 현지인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서 동역함과 동시에 리더십을 이양하도록.

북중남미에서의 신학교육의 내용

1. 신학적 엘리트 주의보다 교회의 현장에 맞는 실천신학 교육
2. 선교현장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신학교육
3.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복음을 이해
4.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그곳 문화에 복음을 심어야
5. 선교지 교회가 또 다른 지역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갖도록 하는 신학교육

신학생 선발기준과 의무

1. 세례를 받은지 2년 이상된 자로서 담임 선교사 및 현지인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품행이 모범인 자
2. 정규 수업시간인 화,수,목,금요일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아야하며, 목회연수과는 3년 동안에 54학점을 취득해야하며, 목회연구과는 4년 동안에 60학점과 논문을 통과해야 졸업을 하게 된다.

- 멕시코 임한곤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척장암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몸속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부터 감기 기운이 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2.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척추끝 부분 통증이 심하여 MRI 검사 결과 줄어든 암으로 인해 뼈부분이 연약하여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님이 유방암이 림프로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항암치료중인 아내와 제가 양성판정을 어제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저는 가벼운 감기반응 뿐이지만 강선교사는 좀 힘들어하네요.
5. 강명철 선교사 - 영적 전쟁에서 승리 할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도록.
6. 이지향선교사 - 척추 협착증과 발 족저근막염이 치유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7. 김에스더/김승호 목사님: 폐가 빨리 회복되고 자가 호흡이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8. 페루 박윤수 선교사님이 눈 황반변성 으로 수술받으시러 한국에 나가셨습니다. 주님이 깨끗이 치유하시도록.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2년 3월 13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1명 자체파송 74%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 옵니다 (1)

코로나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들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저는 블라드 형제와 함께 노숙자를 섬기고자 텔라비브에 차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저의 차가 오래된 까닭에 블라드 형제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격 주로 블라드 형제와 즈비 목회자가 섬기고 있는데 차의 빈자리가 있어야 저도 함께 갈수 있는 상황이라 좋은 차 (장거리를 갈 수 있는)의 필요를 느낍니다. (샤벗 때는 대중 교통이 없음)

지난주에도 노숙자를 섬기기 위해 블라드 형제와 그의 아내는 샌드위치, 초콜릿, 쿠키, 바나나와 음료수, 따뜻한 커피,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일은 저희 공동체에서 지브 목회자를 중심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텔라비브의 센터는 매일 다른 공동체의 식구들이 사용하며 저희 공동체는 샤벗 예배 후 사용합니다. 그날 저와 블라드 형제와 또 다른 구원받은 형제가 함께 했고 그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노숙자들은 음식과 음료를 마시기 위해 찾아왔으며 떡과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나누어 줄 때 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한 여성에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야 하며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기억해야 함을 느낍니다. 늘 그렇듯 찾아오는 이들은 고맙다는 인사와 음식을 먹으러 오고 싶고 또 항상 맛있다고 말합니다. 기도 받기를 원하는 한 여성은 너무 삶이 힘들다고 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궁핍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힘을 주는 공동체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막스라는 형제가 아시퀼론의 재할 센터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즈비 목회자와 블라드 형제가 음식 나누는 일을 통해서 노숙자인 막스가 그 재할 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미 봉사하고 있으며 음식도 만들어 섬기는 멋진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또 함께 찬양하며 성경도 공부하고 노숙자의 삶에서 회복되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기쁜 일 인지요. 가난하고 마약과 죄에 포로 된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블라드 형제 또한 젊었을 때 마약에 빠진 후 여러 해 동안 방황하고 허망한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민자입니다. 그에게 축구를 좋아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전혀 월드컵에 관심이 없고 늘 찬양하며 기도하고 산다고 고백하여 제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즈비 목사와 블라드 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그날 만난 분들 중에는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을 찾기도 하고 커피를 타는데 물을 붓기 전에 먼저 커피와 설탕을 먼저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하고 원하는 것을 찾는 모습) 영적으로 사단에 묶여 있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두 손 모아주세요.

<안식일에 관한 나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샤벗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샤벗 저녁 식사를 하는데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친구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일본으로부터 이스라엘에 온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연결하는 단체) 봉사자로 섬기고 있는 젊은 자매와 형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일본 복음화에 귀한 일꾼으로 성장 되어 쓰임 받기를) 호산나라고 하는 자매는 3대째 신앙, 옆의 형제는 2대째 신앙인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젊은이들이고 특별히 일본의 젊은이들 이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로 알려진 일본에서 특별히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본어와 한국어로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감동적인 시간이었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주께 감사 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일본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에 더 마음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 이스라엘 & 인도 김바울 선교사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 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인도>

인도 모라비안 교회의 지체 할머니의 건강과 회복 (모라비안 골반을 다쳐서 누워있음) 과 환우들과 핀투의 간암 치료. 로산 목사의 공동체에 은혜를 더하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와 강건한 믿음을 위해서, 진행중인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네팔 카투만두 모라비안 공동체의 나젠드라 형제가 아내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았으나 소천하였는데 그 아내와 가족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일요일 저녁 기도모임과 수요일 성경공부에 은혜와 언어의 진보를 위해서, 라헬의 건강(다발성 경화증), 사무엘 목사님의 건강(방광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에스더가 주께 돌아오기를, 레이첼(장애인의 건강, 자크 목사님과 즈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와 아내의 건강과 아내의 학업 (지금 오미크론으로 5일째 회복 중), 다음달 중순에 제대하는 은상 (오미크론으로 몸살감기)이가 남은 기간 중에도 건강하게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제대 이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인도에서 공부하는 은수, 은준이의 학업과 건강, 이스라엘의 은도(안구 건조증과 익상편 결막염의 회복을 위해서)와 은교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두 손 모아주세요.

- 이스라엘 & 인도 김OO 선교사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1월29일 전도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위치는 멕시코 시티에서 70km 떨어진 톨루카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해발 9500 ft). 현지 교회 동역자들과 팀 멤버들 50명이 함께 참여 했으며 찬양과 기도로 집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집회가 있기 전주 (1월 23일) 주일에 미리 거리 전도를 통해 집회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현지 교회를 찾아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하는 시간을 통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토요일 전도 집회를 준비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무당들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방해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끊임 없는 방해가 있었지만 그 보다 더크신 주님의 은혜로 승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 져고 알콜과 마약으로 삶을 이어간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고통은 가정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일이 허다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가득메운 집회 장소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마음을 열게 하였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선포로 주님이 권능이 그 장소를 주장하셨습니다. 뿌려진 주님의 말씀은 많은 열매로 돌아 올 것입니다. 기도 시간중에는 특히 축사와 육신의 치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평강을 맛 보게 되었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 왔습니다. 약 70여명의 새로운 영혼이 주께로 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집회에 온 모든 자들에게 빵과 수프를 나누고, 선물도 전했습니다. 전하는 팀 들의 손들이 주님에게 쓰임 받는 복된 손이 되었습니다. (성도여러분들의 손을 대신해서) 집회를 통해 얻어진 영혼들이 현지 교회를 통해 새롭게 성장 하는 모습을 보게 될것입니다. 오늘도 미약하고 아무 자력 없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주님을 찬양 하며 소식을 전합니다.

<기도제목>

- 1, 주님의 은혜로 멕시코에 부흥을 허락 하소서
- 2.뿌려진 주님의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 3.6월 18일 있을 전도 집회를 위해서

- 멕시코 송두선 & 양정연 선교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 대한 명제는 거룩함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원하신 것이 거룩 하라는 것이었다 (레19:2).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살전4:3). 성화단계에 있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도 거룩함의 과정인 것이다. 거룩함은 성결함과 분리될 수 없어 동의어로 쓸 때도 있다.

‘거룩’(qodesh)이라는 말은 속된 것과 구별됨을 의미한다. 구별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 동화하는 과정과 동화되는 삶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진리대로의 삶이다.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함이다(요17:14-19,14:21). 이런 점에서 알레테이아(헬:Aletheia)라는 진리의 의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단어는 망각을 깨뜨리어 덮혀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세속적인 삶 때문에 잊고 있었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붙잡게 되는 것을 칭한다. 진리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요1:14).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기 위해서는 진리인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고별설교 후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17:17)라고 기도하셨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들어갈 수가 없기에 우리가 반드시 진리인 말씀으로 서 있어야 함을 아시므로 드러진 기도일 것이다(히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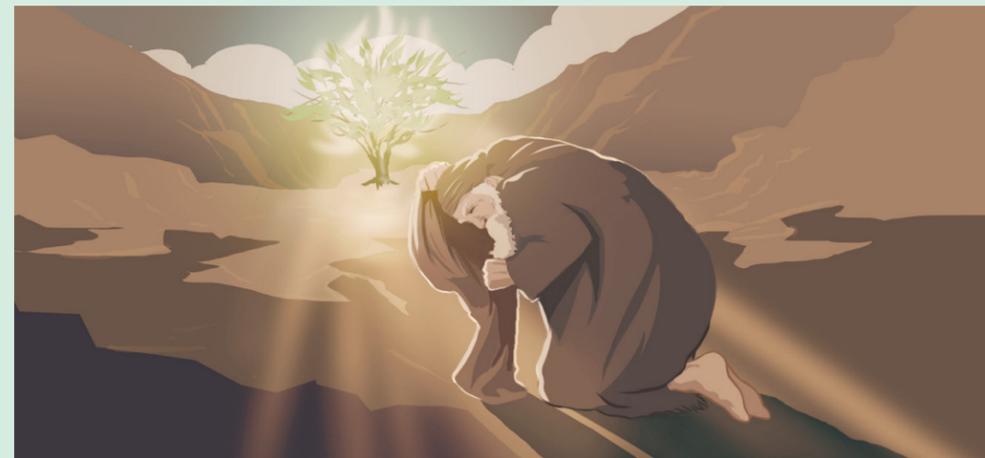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합2:4)”는 말씀도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거룩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성막에 거하신 것이었다.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요1:14). 이를 헬라이어의 문자대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살고 계시다는 의미이다. 고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동거하실 수 있게 준비된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선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들을 지켜야 한다. 레위기의 1-16장은 거룩하게 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의 핵심은 피에 의한 속죄함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거룩에 이르게 됨을 나타낸다(히9:13-15).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17-27장에서 설명되어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8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면서 구체적으로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여 지킬 규범에 충실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십계명의 내용을 다분히 내포한다.

거룩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으며 정결함으로부터 시작된다. 거룩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한마음을 갖도록 하며, 자기부인과 절제를 통하여 욕망과 정욕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모든 이들과의 관계와 말은 바를 성실히 하며, 영적(성령) 충만을 추구하며, 유희를 이겨내어 마음을 성결케 하며, 자기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근대 복음주의 퓨리탄의 대표적인 한 사람 John C. Ryle은 말하였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이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왕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에 민감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길에서 사랑을 느끼며, 정직한 마음과 진솔한 대화로 교통하며,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하고, 정결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롬 12:1,2,마 22:37-39).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바로 예배적이면서도 거룩한 삶인 것이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한다. 시작된 새해,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거룩한 자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들림 받기위해 준비하는 삶이자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살전2:12). 거룩은 우리의 대명사가 되어야 한다.



- 김대규 장로

2022년 3월 타타르스탄 (러시아, 카잔) 주선민 손소미아 선교사 아힘서신 이센메세스 (타타르어로 '안녕하세요'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 정성껏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빛 교회 개척 소식>

저희는 주일 예배후에는 현지인들 상황에 따라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주전 제가 너무 지쳐서 한번 쉬었더니 본인들이 시간 될 때 안 하냐고 하더군요. 다음부터는 제가 현지인들 시간에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리야나의 엄마와 아이들이 아파서 한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린이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알리사와 바짐, 손소미아 사역자가 돌아가면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볼가그라드에서 온 고려인 청년들은 여름까지 일 때문에 카잔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신앙이 좋아서 교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카잔외곽에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데 택시로 40분이 걸리는데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갑니다. 그리고 카잔대학교의 한국학센터에서 일하시는 한국인 한 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찾던 중 이번주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LA은혜교회의 한 공동체에서 후원을 해 주셔서 남성의 날에 중국식당에서 잘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식당이 좋았는지 이번에도 가자고 하길래 이번에는 여성의 날에 그 중국식당에 가서 또 잘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현지인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좋은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모임은 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2월 중순에 주선민 사역자가 2주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어서 모임을 ZOOM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코로나 응급 약품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시는 분들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 제한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임 중에 성령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소식>

주선민 사역자와 손소미아 사역자는 대학교에서 현지교수들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현지인들의 교육현장과 직장문화를 계속 배우는 것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세아는 재활치료 의사로부터 재활운동들을 배워서 집에서 운동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1. 타타르의 무슬림 청년들 복음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사랑의 빛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제자를 삼는 삶을 살도록
3. 교회와 한글학교 사역을 위한 모임 장소를 위해서
4. 대학도 한글학교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도록
5. 세아의 왼쪽 다리 무릎 재활 치료를 위해서

- 러시아 카잔 주선민 & 손소미아 선교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벌써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넘어 갔네요. 과테말라는 면적이 작은 나라지만 지역마다 날씨가 천차만별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 해안가는 전형적인 열대기후로 덥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주하는 수도인 과테말라 시티로부터 서북쪽으로는 산맥을 이루는 고산지대여서 2월까지의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했는데 이제 3월을 맞이하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 지고 있어서 마음까지 따뜻해 지는 듯합니다. 이틀전에 과테말라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나누길 원합니다. 과테말라 국회에서 '생명과 가족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낙태죄 처벌이 최대 25년형으로 강화되었고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단의 역사로 인해 온 세계가 동성연애와 낙태를 지지하는 추세에서 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유일한 나라가 과테말라가 아닌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과테말라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사역에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과테말라 시티에 개척된 제 2 은혜교회의 전도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제 주변 주택가와 상가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과테말라 현지인 가정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저희부와 현지인 Gerson목사 가정, 그리고 몇 안되는 현지인 가정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혼신을 다해6년동안 사역했고 어느정도 자립이 되어서 현지인 Maynor목사에게 교회사역을 위임하고 떠나왔던 케잘테낭고의 제 1 은혜교회는 저희가 떠난후에 크게 부흥하여 지금은 거의 두배로 성도수가 많아져서 예배를 1,2부로 나누어야 할 정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교회를 증축하거나 더 큰 곳으로 이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해서 La Gracia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동역자님들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과테말라 시티를 중심으로 동부지역에 있는 도시마다 새롭게 현지인 교회와 목회자협회를 방문하면서 과테말라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마음을 읽고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도록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GMI Guatemala의 '세계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 사역'(IUM)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과테말라 6지역의 새로운 도시에 목회자 협회를 방문/설교했고, 4월에는 근접국가인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교회협의회를 방문 예정이고, 5월에는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를 방문해서 집회를 갖고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세계선교를 위한 중미 6개국 교회 연합사역'(IUM)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GMI 과테말라 신학교가 드디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개원예배와 5박 6일의 첫번째 강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열렸습니다. GMI 선교팀장인 안영식 목사님, 김희숙 목사님, 그리고 Stella전도사님이 섬겨주었습니다. 강의 과목이 '성령론'이었는데 정말 과목 그대로 성령님의 놀라운 기쁨부움이 있었습니다. 19명의 1기생 학생들의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났으며, 대부분의 목사들이 오순절 교단 출신들이면서도 성령에 대한 신학적인 무지식과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과테말라 신학교는 앞으로 매월 한 강의씩 2년의 훈련과정을 통해 목회자와 선교사를 양성해서 파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신학생들이 2년의 훈련과정을 잘 마치고 교회 개척과 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과테말라 신학교 사역이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특별히 부족한 사역재정이 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중보와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과테말라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1.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 충만하도록
2. 부족한 GMI 과테말라 사역 재정이 채워지도록
3. 과테말라시티/케잘테낭고 은혜교회(라 그라시아)의 부흥을 위하여
4. GMI과테말라 신학교 사역에 성령님의 기쁨부움이 있도록
5. GMI 과테말라 선교센터 건립을 위하여

- 과테말라 최용준 & 최재숙 선교사



“ 할렐루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10).

코로나로 정체된 듯한 두 해를 보내고, 현장에서 3년차 제한된 환경과 사역 상황이지만, 2022년도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시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함과 은혜, 평강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보육원 건축현황>

2021년 7월 21일 기공예배를 시작으로 8개월차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래와 같이 사랑의공동체 조감도, 평면도, 전기, 수도 설계도 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설계도면에 따라서 안전하고 순조롭게 완공되고 현당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21일(기공예배) -2022년 2월 현재(8개월 차) 골조공사 건축현황



<사랑의 공동체 - 주님의 어린양>

2019년부터 사랑의 공동체에서 기숙사 생활한 7명의 학생들은 2021년 6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겹치며 운영에 난관도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모두 건강하게 졸업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2021년 11월에 사랑의 공동체 보육원에 신생아(마리아 제니킴, 2021.10.19 출생)를 맡겨 주셨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공동체(보육원) 신생아(마리아 제니킴) 입양(2021년 11월), 동역자, 주민, 친구들과 함께

<사랑의공동체 인도네시아어 맥체인성경읽기 연구와 묵상, 기도사역>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 건축과 함께 1년간 인도네시아어 맥체인성경읽기 순서에 따라서 날마다 아침(05-07시), 저녁(19-21시)으로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쌓고,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충만함 가운데 깨어서 맡겨 주시는 사역, 성실하게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 건축, 완공, 현당을 위해서.
2. 사랑의 공동체 보육원 사역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양을 사랑으로 돌보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도록.
3.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기도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4.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에 영적인 부흥과 복음전도의 사랑의 불길기 타오를 수 있도록.

-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 김OO & 주OO 선교사

중동사역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셔서 터키 타요르단 레바논 사역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중동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왔는데 주님은 이미 중동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세밀하게 준비해 두셨고 인도해주셨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시리아 사람들 사역을 하도록 준비해주셨고 또한 씨리야로 가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가고 있고 곧 이스라엘에서의 사역도 열려지고 막혀있던 이스라엘로의 선교사도 다시 파송하게 될겁니다. 주님은 어렵게 생각 했던 중동으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인 예루살렘으로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진행 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셨기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족한 선교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주시며 세밀하게 준비해서 인도해주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에 진행 될 시리아 가는 길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도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선교사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메산골에서 데이빗 선교사가 보냅니다.

- 타직스탄 최OO 선교사

‘선한 목자’의 목장 이야기

어린양 중에서 가장 튼튼한 수컷인 쌍둥이 예루살렘의 둘째 살렘. 1년되었을때주께울려드리려고,흙없이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애지중 지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주 갑작스럽게 이유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담당 돌보미였던 에덴이도 통곡하며 무척 힘들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장애로 태어난 쌍둥이 에클레시아의 튼튼히 레시아도 지난 주 갑자기, 우리를 엄마처럼 졸졸 따라다니던 튼튼히 레시아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새벽 2시의 일이었습니다.

불침번을 서던 장호는 인공호흡과 심장펌프, 할 수 있는 온갖 응급처치는 다 했습니다. 레시아를 끊임없이 쓰다듬으며 기도했지만, 아침 6시에 그를 주님께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끼양 두 마리의 죽음으로 우리 가족은 하루종일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 그런데 몽골족들에게 ‘죽어가는 양들은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왜 죽는지 몇 천년 묵양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랍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신 하나님”.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이십니다. 새끼양들이 젖을 먹을 때면 있는 힘껏 어미젖에 박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들이받으면 엄마 유방주변은 금세 벌개집니다. 쌍둥이의 엄마양들은 새끼들이 양쪽 박치기로 젖을 받으면 아프지 자꾸 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성애가 없던 안디의 쌍둥이 레시아도 어쩌면 젖양이 모자라 다른 것들로 배를 채우다 탈이 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단의 위험성을 다시 묵상합니다.) 이 곳으로 오기 전, 몇 년 동안 도시에서 기업강연과 집단상담을 통해 전도한 사람들을 각 지역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연합사역이고, 현지인들이 성장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들은 잘 양육하겠다는, 저희에게 상담의 종결과 멘토멘티의 인수인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그 어린양들이 우리의 쌍둥이 양이 죽기 전처럼 연약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 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성의 목사님께서 “영혼에 대해 마음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케어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마음 에 울렸습니다. 다시 긍휼함과 책임감이 올라왔습니다. 나태한 청지기로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어린양을 먹일 수 있을지 성령의 인도함을 구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목자가 무엇을 해야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때 배운 거짓말쟁이, 잔머리쟁이의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일까요, 그에게서 공공 숨긴 제 욕심이 보여서일까요, 솔직히 저는 야곱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목장을 시작하시면서 저희는 밤낮 없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고, 양이 낙태할까 봐 산파도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 먼 데까지 농약없는 풀을 사러 가고, 때마다 소독하고, 찬양 불러주고, 말 씬도 들려주었습니다. 잘하고 싶었고,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슬프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모든 양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약덕업주인 외삼촌의 양들을 손해나지 않게 돌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현지인에게 하니 그것은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경계마다 철조망을 세워놓지 않은 땅에서, 삼촌 양과 자기 양 두 떼를 함께 돌보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양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고, 출산을 보지 않으면 쌍태도 모를테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20년 동안 한결같은 성실과 충성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시지 않는구나 싶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의지할 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목장의 주인 ‘선한 목자’, 그 분만 의지하기로 다시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일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 중국 장O & 김OO 선교사